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11. 마조의 심외무불(2)

보신과 화신이 참 부처는 아니다 報化雖然非眞佛 마음도 아니란 말 바로 마음이란 말 比心還與即心同

(依佛似曲 縱權聽)은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즉심이고 비심이고 심은 심이니 글자와 발음 또한 같지 아니한가. 이런 언어회

곡조 비슷하여 들을 만하더니 依佛似曲 縱權聽 다시 바람 불어 다른 곡조로 드는구나 又被風吹別調中

위 계승, 1행에서 '보신과 화신이 참 부처가 아니다' 그림 무엇이 참 부처인가? 하는 질문은 2행에서 '마음'이 바로 법신인 참 부처다로 해석된다. 진리의 당체인 부처를, 곧 만유의 본체인 법신과 수행의 결과에 의해 유행으로 나타나는 보신, 보신불을 보지 못하는 이를 제도하기 위해 나타나는 불신인 응신, 화신으로 나누어 말한다.

보신과 화신은 법신이 유행으로 나타나는 형상불이다. 2행에서 '마음이 아니란 말, 그 자체가 마음이니' 절대 긍정은 절대 부정이니 비심=즉심이고 즉심=비심이다. 3행에서 '곡조 비슷하여 들을 만하다'

절대 긍정은 곧 절대 부정이니 '비심=즉심' '처음과 끝은 결국 근원에 이르면 맞닿는다'

몸조차 같은 곡조에서 흘러나온다. 이와 같이 처음이나 끝 역시 근원에 이르면 맞닿아지므로 들을수록 하모니를 이루어 흥이 절로 난다로 읽혀진다.

마지막 행에서 '다시 바람 불어 다른 곡조로 들어간다' (又被風吹別調中)는 2행과 3행에서의 같이 고정 불변한 정상성이 진리인가 하는 마음을 깨뜨리는 핵폭탄과 같은 시구다. '즉심(비심)'이 모두 진리이고 그 당체의 다른 표현이어서 그렇게 머무는 마음은 다시 반복 망상이니, 이번 망상이 흔들흔들 걸어가며 굴러가

며 번뇌가 다시 보리가 되고 망상이 참 지혜가 됨을 형상화하여 "다시 바람 불어 다른 곡조로 들어간다"라는 결구로 마무리 짓고 있다. 마조는 심즉시불을 비심비불로 또 즉심즉불로 이어 심외무불로 반상함도 사치고 있다.

다음 목암충이 계승이다. 2의 계승은 즉심즉불을, 비심비불은 2의 계승으로 노래했다. 각각 살펴서 감상해보자.

2 서시의 랩시 뒤러서 따름까 西子顏容孰可儔 화장을 안 해도 스스로 풍류라

三箇孩童打馬毬 - 목암충

2의 계승 2행에서 '화장을 하지 않아도 그대로 멋쟁이다' 함은 마음의 본연성을 나타낸다. 또 '아무 것도 마음의 바탕을 따를 수 없다' 어떤 무엇에도 마음은 천연 그대로 대기대응(對機對應)한다. 거리에 나가 대문 앞을 지나가는 이놈도 마음이고 심 없이 구경하는 이놈도 마음이니 '무엇 하나 머뭇거림이 없고, 한 찰나에도 끊임 없이 잘 뛰던 겨울과 같이 바로 대응하니 즉심즉불이라 한다. 중생들이 분별하는 양변의 마음을 송두리째 박살내니 이것이 즉심즉불(即心即佛)의 긍정법 사 용이다.

2의 계승을 살펴보자. 2월의 봄빛에 살아가는 경치가 어찌 마음이라고 하라.

어린 공자들이 거리에서 뛰어 노는. 은 술상에 둘러 앉아 술잔을 비워 즐기는데 무엇이 마음이고 무엇이 술잔이며 봄날의 풍류는 어떤가.

봄 햇살 등에 받으며 열심이 격구를 즐기는 아이들, 마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니, 이 회회낙락하는 봄 속에 펼쳐지는 대공성, 이 대공성 속에 조는 사람을 위하여 마조는 서슴없이 부정법을 사용하여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非心非佛)라고 은밀히 말한다.

마조 이후 중국의 선은 마조선으로 뒤덮이니, 돈오법을 천하에 널리 퍼졌다. 마조는 역사상 가장 많은 입실제자를 두었는데 <전등록>에는 무려 139명이나 마조의 법사로 열거하고 있다.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신촌 대표

배추속전골

오늘 만들어 볼 북한사찰음식은 '배추속전골'입니다. 배추의 원산지는 중국 북부지방인데, 화북일대에서 발달한 것이 화중·화남 및 우리나라와 일본에 전파됐고 각 지역에 따라 독특한 품종으로 개량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추가 언제부터 재배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고려 고종 23년(1236)에 출판된 <향약구급방>에 그 성상을 설명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이미 국내에 재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는 흰보, 갑숨, 염록소, 비타민C가 많고 노란 고갱이에는 비타민 A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배추의 비타민C와 갑숨은 국으로 끓이거나 김치를 담가도 영양분 파괴가 적습니다. 그러므로 야채나 과일 섭취가 부족한 겨울철엔 비타민의 공급원으로서 배추를 하루 1일 비타민C 필요량을 섭취할 수 있을 정도이지요. 또한 배추에 함유된 갑숨은 밥, 국 수, 고기 등의 산성식품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겨울철 최고의 비타민 C 공급원

배추에 함유된 갑숨은 밥, 국 수, 고기 등의 산성식품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묵직·단단한 배추 골라야 '상식'

김장용 배추를 고를 때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간 크기가 좋습니다. 배추를 들어보았을 때 일단 묵직하고 손으로 눌렀을 때 단단한 것이 수분이 많고 싱싱한 배추입니다. 겉잎의 흰색과 녹색이 선명하게 대비되는 것으로 배추 속 부위가 노르스름한 색을 띠고 줄기부위를 찢어봤을 때 달고 고소한 맛이 도는 것이 상품입니다.

배추는 중국요리에서 육류와 함께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중국에선 '백가지 야채가 배추만 못하다(百菜不如白菜)'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배추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 년 내내 김치와 국, 찌개 등에 이용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채소입니다. 배추는 96%가 수분이지만 푸른 잎에



배추속전골

재료 : 속배추 한 포기, 우엉, 표고버섯, 잣, 붉은 고추, 애호박, 두부, 깨소금, 소금, 식용유

- 만드는 법
1. 속배추는 작은 것은 반으로, 큰 것은 4등분으로 나누어 쪄낸 다음 농도가 얼은 소금물에 절인다.
2. 우엉은 껍질을 벗기고 5cm 길이로 곱게 채썰어둔다.
3. 표고버섯은 따뜻한 물에 담가 잘 불어난 물기를 꼭 짜고 곱게 채 썬다. 표고버섯 불린 물은 그릇에 담아둔다.
4. 붉은 고추와 애호박도 같은 길이로 채 썬다.
5. 두부는 얇게 포를 떠서 노릇노릇하게 프라이팬에 지진 후 식으면 같은 길이로 채 썬다.
6. 채 썬 준비한 재료를 따로따로 프라이팬에 볶으면서 간장,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춘다.
7. 절여두었던 배추를 찬물에 한번 헹구고 꼭 짜서 배추 포기 사이에 색을 맞춰가며 볶은 재료를 채운다. 속을 채운 배추는 전골냄비에 담고 표고버섯 물린 물을 붓는다.
8. 센불에서 한소끔 끓인 후 중불로 서서히 끓인다. 끓일 때 자주중주 전골 물을 뿌려주어 양념이 고르게 스며들게 한다. 전골냄비 바닥에 얇게 썬 무를 한 켠 깔아주면 재료가 눌려지지 않는다.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詩語 속 '불교적 향취' 물씬

민영은 1934년 강원도 철원에 출생하여 1959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하였다. 그는 <울인 지나는 길에> <영경귀꽃> <유시를 바라보며> 등 여러 시집을 내었다. 그리고 다수의 산문집과 번역서, 어린이 책을 펴내기도 하였다. 최근 시집 <방울새에게> 담긴 여러 시편들에서 불교의 소재가 발견된다. 분황사 전탑, 월악산 사지반신사, 기사굴산, 부처님, 수보리, 아기 부처님, 만해, 아수라 등이 시행에 언급되고 있다.

도피안사의 백중날 밤 풍경을, 그 무렵 제 나이 열둘이었고. 하늘에는 은가루 같은 별이 빛나고 절 뒤엔 어두컴컴한 숲밭에서는 곱동새가 구슬피 울고 있었소. 그로부터 예순 해가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저지난해 돌아가지고 저 역시 백발이 되었습디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망인 어머니의 손을 잡고 찾아간

이 시의 전반부는 주인공인 화자가 어린 열두 살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도피안사에 보낸 백중날 밤을 진술하고 있다. 은하수가 있는 하늘에는 별이 빛나

방울새에게

민영 | 실천문학사 2007 | 8천500원

고 절 뒤 숲밭에서 곱동새가 구슬피 울고 있었다고 회고한다. 그리고 3년에 와서 예순 해가 지나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화자 역시 백발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또 부처님에게 어머니가 가시는 길을 살펴주고 비취달라고 빌원한다.

과거 어머니와 함께 했던 유년의 공간과 현재 화자가 처해있는 노년의 공간, 그리고 현실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며 잔잔한 감동을 준다.

표제작인 '방울새에게'에서 화자는 젊었을 때는 영롱한 방울새 소리를 가려서 들을 수 없었으나 노쇠하여 '안개 속에 가려진 분황사 전탑/아득하게 보일 때가 돌아오자' 후박 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방울새 소리를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느끼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러한 경지에 든 화자는 꿈속에서 이따금 부처님 말씀을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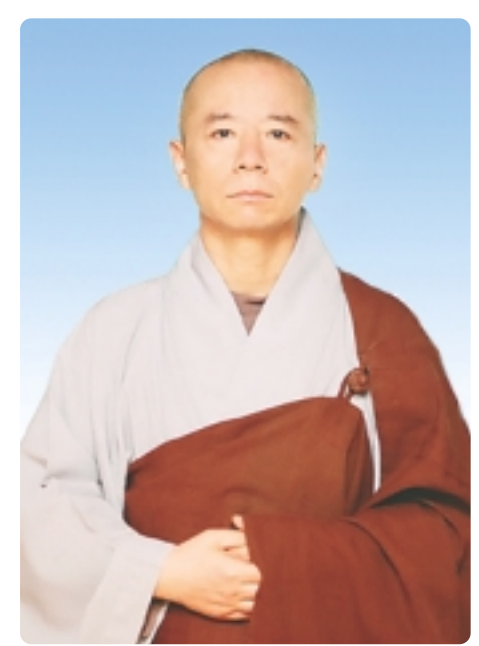
꿈속에서 이따금 낯선 고살길을 가물새가 있었다.

누가 오르는 것도 꿈이 깨어 버려 버리는 것도 이 또한

그 독년의 초가집 잠자리 위에 배의 평안한 잠을 기도하듯 그리우후를 노래하였다.

삼키니 사냥의 기사 굴산에서 부처님 말씀이 벼꾸기 울음처럼 들려온다.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 법어집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대자유인의 삶을 가리켜 보이는 선 법문집의 백미" 서용대종사의 법제자 재산중성 장실의 법맥을 살려 한국 조계선종의 임제가풍을 정통으로 계승한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의 사자후!



법法玄현

법현 스님 저음 신국판 양장본 / 416쪽 / 값 1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번뇌의 파도가 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진여(眞如)의 큰 바다를 보고 분별의 치열한 대립과 갈등의 현실에서 자기 본래의 옛거울을 밝히니 그 찬란한 광명에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

큰 기틀로 크게 쓰니 하늘과 땅을 토해 내고, 서강(西江)의 물을 다 들이켜니 비로자나 정상의 진법신(眞法身)이요 거리의 술집에서 쌍쌍으로 취한 아이들이라



黔丹山 臨濟禪院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135-3번지 전화 031)792-8825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02)737-0695